

〈書 評〉

Nicholas Poppe,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Ural-Altäische Bibliothek 14,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65. Pp. XIII + 212

李 基 文
(서울대학교)

이 책의 著者 니콜라스 포페教授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 方面에 관심을 가진 學徒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現代의 碩學이다. 若冠에 이미 蒙古語學者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지난 半世紀 동안 蒙古語學뿐 아니라 알타이語學 전반에 걸쳐 前人未踏의 境地에 이르러 올해 古稀를 맞이하였다.

教授는 지난 十餘年 동안에 알타이語學的 分野에 두개의 큰 里程標를 세웠었다. 1955年과 1960년에 각각 간행된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1955)와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Teil 1: Vergleichende Lautlehre* (Wiesbaden, 1960)가 그것이다. 蒙古語學과 알타이語學에 있어 새로운 綜合에의 要望이 있어온 지 오래였으며 이러한 綜合을 이룩할 수 있는 位置에 있는 거의 유일한 學者로서 教授에 대한 學界의 興望이 컸던 만큼, 이 兩書의 出現은 뜻깊은 일이었다. 다만 아직 그의 *Vergleichende Grammatik*의 第二部 (比較形態論)가 未刊이어서 이것이 곧 上梓되어 그에 의한 綜合이 일단의 完成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第二部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또하나의 綜合的 著述이 나왔으니, 이것이 곧 우리가 여기서 評한대기보다 소개하려는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一卷이다. 이것은 위에 말한 두 著述과는 그 性格이 사뭇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前二者는 알타이諸語 (즉 言語)에 관한 著述임에 대하여 이것은 알타이語學 (즉 言語學)에 관한 著述이다. 그리고 前二者가 지극히 오리지날한 것임에 대하여 이것은 어디까지나 初學者들을 위한 入門書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入門書라고 해서, 그 敘述이 平易하다고 해서, 學的 價値가 적은 것은 아니다. 學問의 어느 分野에 있어서나 入門書만큼 중요하고 또 쓰기 어려운 책이 없으며 文字 그대로 그 方面의 大家만이 능히 試圖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페教授가 이 책을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알타이語學을 위하여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가장 큰 特徵은 그 內容이 適切하고 正確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適正

은 아마도 入門書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美德일 것이다. 叙述에 있어서나 參考書目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고 重要性에 따라 正確하게 提示되어 있다. 따라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믿음직한 책이다. 이런 책이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가령 이 책과 비슷한 性格의 책으로 우리는 J. Benzing의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altaischen Philologie und Turkologie* (Wiesbaden, 1953)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適切하지 못하고 正確하지 못한 책의 하나라는 것이 衆評이다. 포케教授도 이것에 言及하여 추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pp. 4-5) 이 Benzing의 책이 年前에 서울에서 影印되었던 것은 아직도 記憶에 새로운데, 影印 같은 일이 자주 있을 수 없는 우리 형편에 하필 이 책이 選擇되었던 것은 역시 適正의 缺如가 빚은 한 不幸이라고 해야겠다.

이 책은 다음의 九章과 索引으로 되어 있다. (章次는 이 책의 것 그대로 옮긴 것이요 괄호 안의 數字는 面數를 가리킨다) O. Introductory (1-5), 1. Altaic languages (7-77), 2. History of Investigation of the Altaic languages (97-124), 3. The Altaic theory(125-156) 4. Mutual influences within the Altaic group (157-163), 5. Contacts of Altaic languages with other languages (165-171), 6. Altaic influences upon other languages (173-176), 7. Characteristic structural features of the Altaic languages (177-196), 8. Brief comparative survey of Altaic languages (197-20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中心을 이루는 것은 1, 2, 3의 三章으로 전체 분량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먼저 序論에서 著者は 이 책의 趣意와 윤곽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이 주로 美國의 大學生들을 위하여 쓰여졌으므로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을 考慮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미국에 있어서의 알타이語學의 歷史는 歐洲에 비하여 매우 짧으며 이 方面의 좋은 教授와 圖書館이 적음을 지적하고 이 方面의 論著에 英語로 된 것이 아직도 매우 적은 탓으로 初學者들에게 英語로 된 指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p. 1) 이 점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대체로 적용되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指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著者の 主眼이 위와 같았음은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이 말에는 謙辭의 一面이 없지 않다. 著者도 가령 토이기語學者가 蒙古諸語 一般에 대하여 또는 어느 한 蒙古語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蒙古語學者가 그밖의 알타이諸語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에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一般言語學者들도 이 책에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p. 1), 이 책은 실상 그의 다른 著述들과 함께 이 方面의 모든 學者의 左右에서 떠나기 어려운 책의 하나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책에 있어 상당한 重要性을 차지하는 參考書目에 대한 原則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요컨대 簡便을 위주로 했다는 것이다. (p. 2) 一例로 타타르語에 대해서 보면 書名이 몇밖에 記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그중에 著者の *Tatar Manual*이 있으며 이 속에 자세한 書誌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書誌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나마 자

세한 書目을 신는다면 심한 不均衡이 招來될 것은 自明한 일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면서도 우리는 때로 書誌가 지나치게 간단함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보고 좀더 자세한 書誌를 위하여 번번히 다른 책들을 뒤져야 한다는 것은 짐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이 缺陷은 앞으로 알타이語學에 관한 좋은 書誌가 刊行됨으로써 메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第一章은 알타이諸語 즉 蒙古諸語, 滿洲·통구스諸語, 추바슈·토이기諸語 및 韓國語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說明은 먼저 現代諸語에 대해서 그 分類, 地理的 分布, 人口, 文字體系 및 參考書目을 들고 나서 歷史的 觀點에서 時代區分, 各時代의 特徵과 資料에 대한 간략한 解説, 과거에 사용된 文字體系들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叙述을 통하여 우리는 알타이諸語에 대해서 요긴한 知識들을 얻을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욕심을 말하면 各言語에 대하여 그 構造에 대한 簡明한 記述이 있었다면 錦上添花였지 않았을까 한다. 著者 자신이 Benzing의 前掲書에 대한 書評에서 적어도 중요한 몇몇 代表的 言語에 대해서만이라도 文法構造에 대한 要約이 있었다면 하는 要望을 피력한 일이 있었으므로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7, 3/4, 1954, pp. 462-3) 우리는 이번 이 책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언가 분명히 모자람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理由는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第1章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알타이諸語란 蒙古, 滿洲·통구스, 추바슈·토이기諸語를 말한다. 최근 韓國語도 몇몇 學者들에 의해서 알타이諸語에 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p. 8) 이것은 앞으로 이 책에서 韓國語가 甘受하게 될 庶孽 處遇를 豫示하고 있다.

第1章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이 章에 提示된 알타이諸語의 分類가 여러모로 새롭다는 점이다. 가령 蒙古諸語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著者의 分類가 거의 半世紀 동안 代表的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論議를 최근에 국한하여 1955年과 1960年의 上掲書들을 놓고, 이들에 提示된 分類와 이번 이 책의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著者의 分類가 그때 마다 새로운 一面을 보여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가장 현저한 사실은 1955년에는 크게 東方派와 西方派로 나누는 傳統을 지켰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상 이것을 버린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55까지는 오이라트語와 칼묵語를 나누었었고 1960에는 이것을 하나로 다루면서도 內容의으로는 並立시켰는데 1965에는 분명히 이들을 통틀어 오이라트語라고 明記하고 있다. (p. 10) 그리고 中國 甘肅省에서 말해지고 있는 산타語의 追加는 1965의 새로운 一面이다. 이것은 이 方面의 最近의 研究 成果에 의한 것이다. 이제 1965의 分類를 아래에 보인다. 참고로 1955의 그것을 並記해 둔다.

1965

I. Santa

1955

1. East Mongolian

- | | |
|------------|-------------------|
| Ⅱ. Monguor | A. Dagur |
| Ⅲ. Dagur | B. Monguor |
| Ⅳ. Mogol | C. East Mongolian |
| V. Oirat | D. Buriat |
| Ⅵ. Buriat | 2. West Mongolian |
| Ⅶ. Mongol | A. Mogol |
| | B. Oirat |
| | C. Kalmuck |

그는 이 分類의 基準으로 다섯 개의 音韻論的 特徵을 들고 있는데 가령 산타語와 모골語는 (1)語頭的 f-<*p-를 가진 점, (2) 第一音節의 o뒤에 오는 第二音節의 *ā가 ō로 변화한 점, (3) *ayu가 u로 변화한 점, (4) 名詞末의 *-n이 脫落한 점 등은 共通의이나, (5) 語末의 *-r이 산타語에서는 脫落되고 몽구오르語 (및 그밖의 蒙古諸語)에서는 유지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부리아트語와 몽골語(內外蒙古의 蒙古語)는 (1)*p->zero, (2) *ā>ō, (3) *ayu>ū, (5) 語末 *-r의 유지 등은 共通의이나, (4)名詞末의 -n을 부리아트語는 유지하고 있으나 몽골語는 消失한 점이 다르다. 물론 실제로 이들이 이 한 特徵단의 差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音韻뿐 아니라 文法에서도 적지 않은 差異가 있다.

滿洲·통구스諸語의 分類에 있어서도 著者는 새로운 試圖를 보여 주고 있다. (pp. 24-27) 1960에서는 그는 獨自的 見解를 내세움이 없이 V.I. Tsintsius 등의 것에 따라 크게 南北兩派로 나누고 모두 5言語를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南北 兩派에의 分類는 버리지 않았으나 모두 10言語를 두고 있다. 이제 이 새로운 分類와 종래의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1965 | 1960 |
|-----------------------------|-------------------|
| 1. Southern or Manchu group | 1. 南方派 |
| Ⅰ. Manchu | Ⅰ. 滿洲語 |
| Ⅱ. Goldi (Nanai) | Ⅱ. 골디語(나나이語) |
| Ⅲ. Ulcha | Ⅲ. 우데헤語 |
| Ⅳ. Oroki | 2. 北方派 |
| V. Udehe (Ude) | Ⅳ. 에벤키語(본래의 통구스語) |
| Ⅵ. Orochi | V. 라무트語(에벤語) |
| 2. Northern or Tungus group | |
| Ⅶ. Negidal | |
| Ⅷ. Evenki (Tungus proper) | |

IX. Lamut (Even)

X. Solon

즉 1960의 II를 1965에서는 II, III, IV로分立시켰으며, 1960의 III은 1965에서는 V, VI으로分立시켰으며 다시 1960의 V는 1965에서는 VII, VIII 및 X로分立시킨 것이다. 이分立은 적어도 北方派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네기달語와 솔롱語를 에벤키語에서 따로獨立시킨 것은 이들의 현격한 差異로 보아 충분히 首肯이 가는 措處로 생각된다. 퉁구스諸語에 대해서도 다섯가지 音韻論的 形態論的 特徵이 分類 基準으로 提示되어 있는데, 가령 솔롱語는 (1)母音間의 -g-의 保存에 있어서만 에벤키語와 共通的일 뿐 (2)語頭의 *p-의 발달 (에벤키 h, 솔롱 ϕ) (3)語末音 -i의 保存 與否 등 나머지 넷에 있어서 에벤키語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方派에 있어서의 分立중 특히 烏차語를 골디語와 떼어 놓은 것은 首肯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위의 다섯 特徵에 있어 이들은 전혀 아무런 差異도 보여 주지 않으므로 이들의 分立은 無理한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根本的으로 再考해야 할 것은 퉁구스諸語의 南北 兩派에의 分類 問題다. 이 分類은 十九世紀 이래의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도 적잖이 論難된 바로 그 根據가 박약하다. 종래 母音間의 -g-의 保存이 北方派의 特徵이요 그 消失이 南方派의 特徵으로 되어왔으며 이 책에서도 이것을 따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물론 不足하며 충분히 많은 特徵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에벤키語와 滿洲語를 兩極으로 하여 그 中間에 여러 言語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편이 온당할 것도 같다. 가령 우데헤語를 南北 어느 派에 歸屬시키는 것은 無理가 따르게 마련이다.

滿洲·퉁구스語群에 대해서는 그 歷史에 대해서 따로 논하지 않고 다만 現代諸語의 分類에서 女眞語에 대한 한 項目을 마련했을 뿐이다. 女眞語는 이 語群중 오랜 資料를 가진 유일한 言語인 바, 여기에는 金代의 古代 資料와 明代의 中世 資料가 있다. 이 책에는 이런 古代와 中世의 區分을 하지 않았으며 古代 資料가 無視되어 있다. 量的으로는 보잘것 없으나 이 語群의 유일한 古代 資料인 만큼, 이들은 큰 重要性을 가지는 것인데, 종래 알타이語學에서 金代 資料가 전적으로 無視되어온 것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토이기諸語라 불리워 온 것이 이 책에서는 추바슈·토이기諸語라 불리운다. 추바슈語가 餘他の 토이기諸語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일찌기 G.J. Ramstedt 에 의해서 提議된 바요, 이 책의 著者도 줄곧 이에 贊同하는 立場을 취하여 왔으나 1960에만 해도 그는 아직 이들을 包括하는 경우 토이기諸語란 말을 썼었는데 1965에 이르러 추바슈·토이기諸語란 말이 一貫性 있게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추바슈祖語와 토이기祖語의 共通語 段階를 先토이기語(Pre-Turkic)라 한 것 (p. 33)은 未洽한 느낌을 준다. 이 경우 추바슈·토이기共通語(또는 祖語)라 하는 것이 더욱 온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추바슈語를

제외한 토이기諸語의 分類에 대해서는 A.N. Samoilovich 와 Ramstedt 의 것을 修正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言語를 設定하고 있다. (pp. 33-36).

- | | |
|-----------------|--------------|
| I. Yakut | IV. Chagatai |
| II. Tuva-Khakas | V. Turkmen |
| III. Kypchak | |

이것은 종래 야쿠트語를 제외하고는 地理的 分布에 따라 北方群, 西方群, 東方群, 南方群 등으로 불려오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發展이라고 할 수 있다.

第1章은 또한 알타이諸語의 歷史에 대해서도 略述하고 있다. 먼저 蒙古語의 歷史에 대한 설명(pp. 21-22)에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古代와 中世의 段階에 대해서도 方言의 存在를 假定한 점이다. 즉 그는 古代蒙古語에 語頭の f-(<*p)를 가졌던 方言과 h-를 가졌던 方言이 있었으며 前者의 系統을 끄는 것이 現代에도 f-를 가지고 있는 몽구오르語 및 산타語요 한편 蒙古文語는 필시 後者에 기초를 두고 形成되었으나 h-는 表記上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더 내려와 그는 中世蒙古語에 적어도 南部, 東部 및 西部의 세 方言이 있었다고 보고 南部 方言의 系統을 끄는 것이 몽구오르, 산타 및 다구르諸語요, 東部 方言의 系統을 끄는 것이 부리아트語와 몽골語이며 西部 方言의 系統을 끄는 것이 모골語와 오이라트語라고 본 것이다. 古代 및 中世에 있어서의 方言의 存在는 토이기語學에서는 진작부터 인식되어 온 것이요, 中世蒙古語의 東部 方言과 西部 方言에 대해서는 著者 자신이 전에도 말한 바 있어 신기할 것이 없으나 古代蒙古語에 있어서의 두 方言의 存在에 대한 假說이 종래 가장 不可思議로 되어 온 蒙古文語의 成立을 解明하는 한 길을 열어 준 점은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책에서 契丹語에 대한 言及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음은 유감이다. 契丹文字가 아직 解讀되지 않았고 漢字로 表記된 資料가 零星하여 이에 대한 研究가 아직 잘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것이 넓은 의미의 蒙古語群에 속하는 한 古代語임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p-를 유지했었으므로 古代蒙古語의 p-方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아마도 古代蒙古語(또는 共通蒙古語)와 姉妹 關係의 言語를 代表할 蓋然性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알타이語學이 早晚間 消滅한 古代諸語에 대해서 한결같은 關心을 기울이지 못했음은 反省해야 할 것이다.

추바슈·토이기諸語의 歷史는 匈奴의 言語에 관한 問題로 시작된다. (p. 57) 오늘의 토이기族은 匈奴族에서 나왔으며 그들의 言語를 토이기祖語 또는 그것과 매우 비슷한 言語라고 보는 見解가 있어 왔으나 이것은 證明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비교적 많이 연구된 불가리아語 資料에 言及하여 이것은 古代 추바슈語 바로 그것이거나 그것과 매우 가까운 言語였으리라고 推定한다. 그리고 나서 古代토이기語와 中世토이기諸語

에 대해서 要約하고 있는 바 特記할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 第1章에는古今을 통하여 알타이諸語의 表記를 위하여 사용된 거의 모든 文字體系의 表들이 있다. 한 책 안에서 이렇게 많은 文字表들을 보게 되는 것은 여간 편리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들 文字體系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初學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유감스럽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소련內의 토이기諸語의 文字化 政策에 대한 著者の 批判이다. (pp. 53-57) 즉 이 文字化에 있어 많은 토이기語의 同一 音素에 대하여 서로 다른 文字를 사용한 例가 너무나 현저하여 서로 비슷한 言語를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 言語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故意的인 政策의 結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韓國語에 대해서는 이 章의 맨끝에 數面을 割愛하여 文字表와 함께 現代 諸方言의 分類와 그 歷史의 時代區分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주로 拙著 國語史概說(1961)의 該當 部分을 要約한 것이다.

第2章은 잘 정리된 알타이語學史로서 이 方面의 初學者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既成學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주로 三語群의 研究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을 남긴 學者들의 略歷과 業績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이 方面을 제외하고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웬만한 人名辭書 類에서 그들의 生年조차 찾기 힘든 형편이며, 十九世紀 아래의 여러 著書 雜誌를 통하여 斷片的으로 그들에 관한 記錄을 얻어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특히 著者は 二十世紀의 大部分의 學者와는 個人的 親分을 가지고 있었던 터이므로 그의 叙述은 正鵠을 얻고 있으며 그가 아니면 바랄 수 없는 內容도 적지 않다.

이 章은 歐美의 알타이語學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지금까지 알타이語學이 그러했고 또 이 책의 目的이 그런만큼 과히 나무랄 수 없는 態度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령 토기에 있어서의 토이기學者들의 業績에 대한 一項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특히 韓國語學에 관한 部分을 찾아 볼 수 없음은 우리로서 못내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第3章은 알타이諸語의 親族關係에 대한 諸說을 歷史적으로 回顧하고 著者 자신의 見解를 피력한 것이다. 十八世紀 前半의 von Strahlenberg로부터 起筆하여 우랄·알타이假說의 形成 過程을 略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극히 一部の 學者들의 未練 속에 남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알타이假說은 G.J. Ramstedt 에 의하여 樹立된 뒤,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어떤 懷疑論 내지 反對論들이 있어 왔는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批判을 행하고 있다. 著者は 알타이說을 支持하는 代表的 學者로서 과거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說을 辯護해 왔는데, 이제 이 章에서 그것을 綜合하고 있다.

이 章에서 注目되는 것의 하나는 Ramstedt 에 있어서의 알타이說의 발전을 밝힌 점이다 (pp. 130-132, 143-145). Ramstedt 역시 처음에는 알타이諸語의 親族關係를 의심하다가 뒤

에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여기서도 다시 그의 見解가 初期와 後期사이에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이 책의 叙述에 다음의 두가지 사실이 補足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Ramstedt의 初期 알타이說에 대해서 이 책은 그의 1916년의 論文(Ein anlautender stimmloser Labial in der mongolisch-türkischen Ursprache)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보다 그가 1928년에 韓國語에 대해서 쓴 論文(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의 結論部分에 더욱 명백히 그의 見解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알타이祖語에서 蒙古・토이기 共通語(Mongoloturcicum)가 먼저 分離하고 통구스語가 韓國語와 가까이 있으면서 中國語 借用語를 그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初期의 見解를 Ramstedt는 뒤에 스스로 修正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1939年頃이라는 사실이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1939년에 伯林에서 Über die Stellung des Koreanischen이란 제목의 강연을 행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알타이諸語의 親族關係에 대한 그의 새로운 見解를 피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55, 1951 所收)은 당연히 이 책의 p. 132와 p. 148의 參考書目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印刷上の 잘못이지만 p. 145의 圓은 時計 바늘과는 反對 方向으로 180度를 돌려 놓지 않으면 안된다.

著者は Ramstedt說에 대해서 그가 1960년에 행한 修正을 이 책에서도 되풀이하고 여기에 다시 J. Street의 說도 소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別稿(국어국문학 27, 1964)를 쓴 일이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다.

著者は 알타이說에 대한 懷疑論 내지 反對論을 批判하는데 상당한 紙面(pp. 148—156)을 바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다시 두 部類의 學者를 구별하고 있다. 第一類는 알타이諸語의 親族關係를 排斥하지는 않고 다만 아직 證明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學者들로 K. Grønbech, L. Ligeti, 및 J. Benzing을 들고 있다. 이 중 Benzing은 처음에는 강경한 反對論者였으나 점차 그의 主張이 弱화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D. Sinor는 처음에는 알타이說 내지 우랄・알타이說마저 支持하는 듯이 보였으나 점차 反對論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고 본다. 그는 Poppe의 比較音韻論(1960)에 대해서 자못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최근 알타이說에 대한 反對論에 열을 올린 사람으로는 Sir Gerard Clauson과 G. Doerfer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토이기語와 蒙古語 사이에 발견되는 共通語彙는 모두 古代에 있어서의 토이기語로부터 蒙古語에의 借用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著者の 批判은 자못 신랄하다. 古代토이기語 yayiz 'brown', 中世蒙古語 dayir 'brown'의 比較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dayir의 再構를 가능케 한다. 이 경우 Doerfer는 토이기祖語形으로 *dayiz를 再構하고 이것이 蒙古語에 借用되어 *dayir > dayir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첫째 토이기祖語形은 *yayiz일 밖에 없다. *d-는 蒙古語와의 比較에 의해서 비로소 再構되는 것이다. 둘째 하필 위의 蒙古語 단어가 토이기語로부터의 借用이라고 해야만 할 理由가 없다. 借用이

라 하면 그 反對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 이들을 借用이라고 보아야만 할 理由는 무엇인가. 共通 起源에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도 不合理的 점이 없지 않은가. 이러한 著者の 論理는 拙見에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語는 Ramstedt 에 의하여 알타이諸語속에 포함되었다. 그뒤 이 책의 著者도 이 說을 支持하여 왔다. 韓國語에 대한 理解가 극도로 缺如된 오늘의 알타이語學界에서 이 觀點을 固守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도 著者는 기본적으로는 이 觀點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韓國語에 대해서는 많은 保留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著者는 언젠가 「韓國語 문제를 너무 강력하게 내세우면 도리어 알타이說 反對論者들에게 좋은 口實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私席에서 말한 일이 있다. 學問에 있어서도 이런 苦衷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章의 韓國語에 관한 部分(특히 pp. 137-138)을 잘 읽어 보면 著者の 眞意가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第4章에서는 알타이諸語間的 相互 借用이 다루어진다. 言語의 比較研究에서는 借用이 排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借用에 관한 날카로운 關心이 있어야 하는데 알타이語學에서 지금까지 이 方面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章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不足할 것이다. 著者는 먼저 진정한 比較와 借用을 식별하는 「유일한 基準」은 音韻對應이라고 하고 實例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pp. 157-8). 가령 蒙古語의 boyos 'pregnant (of animals)'는 토이기語의 buraz 'pregnant'의 借用이다. 왜냐하면 規則대로 하면 토이기語의 -z에는 蒙古語의 -r이 對應되어야 하는데 위의 例의 -s는 토이기語의 -z를 그대로 反映하기 때문이다. 拙見에는 또하나의 基準으로서 形態論의인 것을 追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령 中世蒙古語의 ba'udal 'camp'과 中世韓國語의 「바오달」(營)을 볼 때 우리는 音韻 對應으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借用임을 斷定할 수 없으나, 蒙古語의 ba'udal (蒙古文語 bayudal)은 ba'u- 'to descend'에 接尾辭 -dal이 붙은 派生語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 대하여 國語로서는 「바오달」의 形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借用에 속하는 것임을 밝혀 준다고 하겠다.

알타이諸語를 보면 토이기語와 蒙古語 사이에도(특히 前者로부터 後者에의) 借用이 많지만 滿洲語의 蒙古語 借用은 놀랍게 많아 각별한 注意를 要한다. 著者는 滿洲語 全語彙의 25 내지 30퍼센트가 蒙古語 起源일 것이라고 推算하고 있다. (p. 161) 여기에 中國語 借用語가 20퍼센트 이상 있음(p. 166)을 加算하면 줄잡아 滿洲語 語彙의 半은 外來語인 셈이다.

中國語를 비롯한 여러 言語로부터의 알타이諸語의 借用이 第5章의 對象이 된다. 이미 古代토이기語에 中國語로부터의 借用이 많으며 이들은 위구르語를 통하여 蒙古語에 전달되었다 (p. 165). 그렇다고 해서 蒙古語가 中國語로부터 직접 借用한 단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p. 166). 著者는 韓國語에 있는 中國語 借用語들에 대해서 言及하면서 이 古代

的借用이 알타이語學者들에 의해서 충분한 注目을 받지 못했음을 말하고 古代中國音과의 比較를 통한 韓國 漢字音의 研究가 많은 音韻變化를 樹立시켜 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데(p. 166)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當代 碩學의 炯眼을 느끼게 한다. 비단 韓國語뿐 아니라 알타이語와 中國語의 接觸 問題는 얼핏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런 接觸은 알타이祖語 段階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可能性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Ramstedt 가 深刻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더욱 透視力 있는 研究가 요청되고 있다.

알타이諸語에서 확인되는 梵語를 비롯한 印歐諸語의 借用語들(pp. 167-171)도 매우 흥미 있는 研究 課題인 바, 특히 그 古層이 우리의 好奇心을 끌며 마지 않는다. 蒙古語 nom 'doctrine, book'이 위구르語 nom, 속디안語 nom 을 거쳐 희랍語의 νόμος 'law' 에까지 이르는 것은 잘 알려진 例의 하나다. 아라비아語의 'araq, wine'가 토이기語의 araqī를 거쳐 蒙古語에 들어와 araki 'liquor'가 되었는데(p. 171) 이 흔적은 韓國語 方言들의 「아랑주, 아래기」등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追加되어야 할 것이다.

알타이諸語는 다른 言語들로부터 빌어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빌려 주기도 하였다. 第6章은 이런 輸出을 다루고 있다. 슬라브諸語와 우랄諸語가 主要 輸入語들인 바, 古代에 행해진 이런 借用語들은 알타이諸語의 古代形 再構에 달리 얻기 어려운 소중한 證據가 되는 것이다.

위의 두 章에 古아세아諸語가 전혀 登揚하지 않은 것은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 책의 한 缺點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퉁구스諸語와 古아세아諸語의 接觸은 자못 심각하며 서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온 것이다. 이런 接觸의 年代는 古代에 거슬러 올라갈 可能性이 많으며 古代 夫餘系 諸語도 이런 接觸을 가졌던 흔적이 없지 않은 듯하다. 이 方面의 開拓은 알타이語學의 今後의 課業이다.

第7章은 알타이諸語의 構造的 特徵에 관한 새로운 綜合을 試圖한 것이다. 이것은 十九世紀 이래 우랄·알타이語學 또는 알타이語學에서 盛行해온 共通特質論의 最近版이라고 할 수 있다. 著者が 첫머리에서 “알타이諸語는 많은 特徵을 共通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 特徵은 많은 다른 言語들(印歐語, 세미트語, 中國·티베트語 등)로부터 그들을 구별시켜 주며 또 그들을 서로 가깝게 해 준다”(p. 177)고 한 것은 이러한 共通特徵에 큰 有効性을 부여하는 오랜 偏見에 그가 많진 적진 매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알타이諸語가 그들을 둘러싼 많은 言語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構造的 特徵들을 共通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印象的이기는 하나 이들은 親族關係의 消極的 證據는 될지언정 그 積極的 證據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첫머리에 충분히 밝혀졌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또 共通特徵의 選定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著者が 論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비록 알타이諸語에 共通的으로 存在하기는 하나 다른 言語들과 구별해 주는 特徵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가령 長母音과 短母音의 對立(pp. 177-180)은 어떤 語族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 책에 이것을 넣은 것은 蒙古語에 一次的(起源的) 長母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비단 蒙古語 音韻史뿐 아니라 알타이語 比較音韻論에서도 深長한 意味를 가지게 된 사실에 자극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이 章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上述한 의미의 共通特徵論보다는 알타이諸語가 音韻 및 文法에서 보여주는 諸般 一致에 대한 綜合的 記述이 著者の 主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前者를 加味한 後者를 目的한 것인데, 여기서 다소의 混雜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章은 이 책에서 가장 精讀될 가치가 있는 部分이다.

이 章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母音調和論이다 (pp. 181-185).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잘 정리된 것이요 現段階에 있어서의 最高 水準을 보여준다. 母音調和의 理論은 토이기語와 蒙古語를 中心으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이 책에도 이 理論이 展開되어 있다. 그런데 通古스諸語의 母音調和는 이 理論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가 없는 特異한 一面을 지니고 있다. 韓國語의 그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母音調和論은 새로운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拙見은 別稿(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文集 所收)에서 피력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略하기로 한다.

알타이諸語의 文法的 特徵에 관한 簡明한 敘述(pp. 189-196)은 이 章뿐 아니라 이 책 전체에서 가장 흥미깊은 部分이다. 著者は 過去에도 여러 論文에서 알타이諸語의 文法的 特徵에 대한 그의 見解를 部分的으로 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綜合된 全體를 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著者は 먼저 膠着的(agglutinative)이란 말의 정밀한 定義를 행한다. 그것은 모든 단어의 形成과 屈折이 語幹에 接尾辭를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고 하고 여기에 모든 接尾辭가 單一機能(mono-functional)임을 追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印歐語의 語尾는 한 語尾가 둘 또는 그 이상의 機能을 가질 때가 있음에 대하여 알타이諸語의 接尾辭는 언제나 꼭 한가지 機能만 가진다는 것이다.

알타이諸語에 있어 단어의 最少形은 語幹이다. 즉 語幹이 아무 接尾辭 없이 실제로 쓰일 수 있다. 모든 動詞 語幹은 실제로 命令形으로 사용된다. 名詞의 語幹은 그대로 主語로 사용된다. 著者は 韓國語에 있어서도 이것이 통한다고 했으나(pp. 191, 196) 이것은 물론 잘못이다. 알타이諸語에서 代名詞는 主格形이라고 할 것이 따로 있음이 名詞와 크게 다른 점이다 (p. 194). 이 점 역시 韓國語는 例外가 된다. 알타이諸語에서는 實辭와 形容詞를 구별하기가 至難하다. 이 점 역시 韓國語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런 差異들은 종래 잘못하면 隱蔽되기 일쑤였는데 우리는 一致와 함께 差異에 대해서도 注目해야 될 것으로

안다.

마지막 第8章은 알타이諸語의 子音(語頭 및 母音間)과 第1音節 母音의 對應規則을 表로 보이고 그 例들을 든 것이다. 이것은 그의 1960의 內容 중에서 가장 확실한 部分을 추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章에서 韓國語가 완전히 疎外된 사실은 注目에 값한다. 요컨대 韓國語와 알타이諸語의 比較는 아직 확실하다고 할만한 段階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端的으로 暗示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주로 이 책의 內容을 충실히 소개하는데 힘써 보았다. 간혹 拙見을 붙인 것은 실로 蛇足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拙見 중에 조금이라도 진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이 책의 著者의 恩澤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入門書의 美德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誠實性으로 一貫되어 있으며 虛飾과 誇張을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책은 그대로 著者의 高邁한 學識과 人格을 反映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책은 누구에게나 마음놓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드문 책 중의 하나다. (1968. 6. 1.)